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성 소수자에 대한 인식

염은이*

¹청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Awareness of Sexual Minorities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in Graduation Year

Eun-Yi Yeom^{1*}

¹Professor, Dept of Nursing, Chungwo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성 소수자에 대한 인식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는 C도와 K도 소재의 3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졸업학년 학생 8명이었다. 자료수집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심층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자료는 현상학 연구방법(Colaizzi)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4개의 범주와 8개의 주제 모음이 도출되었다. 4개의 범주는 '성 소수자에 대한 양가감정', '성 소수자의 힘든 처지에 대한 공감', '성 소수자 돌봄에 대한 두려움', '간호사로서 미래를 위한 준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의 바람직한 성 소수자 인식과 돌봄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간호교육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간호대학생의 성 소수자 인식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과 발생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키워드 : 인식, 성소수자, 간호, 학생, 질적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meaning on awareness of sexual minorities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in graduation year. The participants were eight students attending three nursing colleges in Provinces C and K. Data were collected from November 2023 to January 2024. through in-depth interview until data saturation.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applying Colaizzi'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In this study, four categories and eight theme clusters were generated. The four categories consisted of 'Ambivalence towards sexual minorities', 'Empathy for the sexual minorities' difficult situation', 'Fear of caring for sexual minorities', and 'Preparation for the future as a nurse'. These results will contribute to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nursing education by providing the grounds for the effective educational strategy development which improve nursing students' awareness and care of sexual minorities. In-depth studies on various factors affecting awareness of sexual minorities in nursing students and problems are required.

Key Words : awareness, sexual minorities, nursing, students, qualitative research

*Corresponding Author : Eun-Yi Yeom(eyyeom@chungwoon.ac.kr)

Received May 19, 2024

Accepted July 20, 2024

Revised July 3, 2024

Published July 28, 2024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사회적 소수자는 한 사회의 지배적인 힘이나 가치와는 다른 특성으로 인해 편견의 대상이 되고 차별당하는 집단을 의미한다[1,2]. 이 중 성 소수자는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과 관련하여 주류집단과 구별되어 차별받는 집단을 지칭하는 용어로 동성애자(Lesbian, Gay), 양성애자(Bisexual), 성전환자(Transgender)를 포함한다[3]. 현재 우리나라는 성 소수자에 대한 공식적인 국가승인 통계자료가 없으며, 자신이 성 소수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을 꺼려하는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으나, 최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성 소수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며 이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성 소수자는 보수적인 유교 사회관념으로 인해 편견과 반인권적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성주의 사회에서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교육, 고용, 의료 등의 다양한 사회정책과 제도적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다[4,5,6]. 특히 최근 성 소수자는 주요 건강차별 취약집단으로 대두되며 그들의 건강관리가 점차 중요하게 주목받고 있다[6,7,8]. 성 소수자들은 일상적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거부와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어 의료기관 이용 시 걱정과 불안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9,10]. 또한 성 소수자들은 의료기관에서 그들의 성적 지향을 드러내도록 요구당하고, 의료진에 의한 무시, 모멸감,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9,11]. 이러한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시선은 성 소수자들로 하여금 예방 검진을 미루게 되고 결국 건강이 악화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12,13].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편견을 경험한 성 소수자들의 건강문제는 이성애자들보다 3배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14]. 즉, 성 소수자들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며 HIV 감염, 성병,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자살, 우울의 고위험군으로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15,16].

간호사는 임상현장에서 다양한 문화를 가진 환자를 간호할 기회가 최근 들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존엄성과 자율성을 보호하는 윤리적 돌봄, 사회적 소수자 간호에 대한 문화적 돌봄이 중요한 역량으로 대두되고 있다[11,16,17,18]. 특히 세계보건기구는 인구집단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취약 계층의 건강 불평등 감소를 주요 건강정책으로 강조하고 있다

[19]. 그러나 많은 간호대학생들이 성 소수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 이성애적 편견을 보이며, 성 소수자에게 문화적으로 민감하고 적절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20,21]. 또한, 간호사는 성 소수자를 간호하면서 낮은 불편감과 부담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성 소수자 간호에 대한 지식 부족, 초기 라포형성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22]. 간호사의 성 소수자에 인식과 태도는 다양한 돌봄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23], 성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의료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24], 성 소수자에 대한 간호사의 포용적 수용과 건강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간호영역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문화적 민감성과 질적 간호 제공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며, 간호대학생이 졸업 후 신규간호사로서 성 소수자에게 차별 없는 질적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대학의 교육과정에서부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국내 간호대학생의 성 소수자에 대한 선행연구는 성적 자기주장, 성역할 고정관념 및 동성애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고[25],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LGBT 교육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26], 성 소수자 문화역량에 대한 통합적 고찰 연구[18] 등이 최근 들어 시행되었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성 소수자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거의 수행되지 않아 간호대학생의 성 소수자 인식 및 경험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이 성 소수자와 이들의 간호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예비 간호사로서 이를 어떻게 의식하고 도전해 나가는지를 면밀히 탐색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성 소수자 간호의 질적 향상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소수자 집단의 건강관리 및 건강 불평등 감소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참여자 개개인의 경험과 인식을 탐구하여 현상을 깊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특성[27]이 있으므로 간호대학생의 관점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인식의 본질을 밝히고자 하는 본 연구목적에 적합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성 소수자의 본질과 의미에 대한 기술을 통해 성 소수자 간호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적, 임상적 중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및 문제

본 연구목적은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성 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사회적 맥락과 연관하여 심층적이고 포괄적으로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문제는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성 소수자의 의미와 본질은 무엇인가?”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설계는 성 소수자 인식의 본질과 의미 구조를 밝히기 위해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현상학적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C도와 K도 소재의 3개 대학에 재학 중인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을 편의 표집하였다. 또한 평소 성 소수자에 대해 관심이 많고 성 소수자 인식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로서 연구참여 의지를 보인 학생을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총 8명으로 여성 5명, 남성 3명이었다. 참여자의 연령은 23세부터 32세 사이였다.

2.3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기간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였으며,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참여자와의 면담은 2~3회 실시하였으며, 소요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였다. 참여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수업을 마친 후 교내 세미나실이나 회의실, 학교 근처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초기의 면담 질문은 “성 소수자에 대한 생각과 태도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 소수자에 대해 알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 소수자에 대해 긍정적/부정적 태도를 갖게 된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때의 느낌이나 기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등이었다. 2차 면담 질문은 “성 소수자를 간호하게 된다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성 소수자를 간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등이었다.

2.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Colaizzi[27]의 방법 및 단계를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1단계는 면담 필사본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탐구 현상에 대한 윤곽을 파악하였다. 2단계는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성 소수자 인식’의 ‘의미’를 나타내는 125개의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하였다. 3단계는 의미 있는 진술을 일반적인 형태로 재진술하였다. 4단계는 일반적인 형태의 재진술로부터 성 소수자 인식에 대한 38개의 구성된 의미를 도출하였다. 5단계는 구성된 의미를 16개 주제, 8개 주제 모음, 4개 범주로 조직화하였다. 6단계는 성 소수자 인식을 범주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기술하였다.

2.5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C 대학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10415666-202309-HR-004-01).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방법, 참여 철회에 대한 권리 등을 설명하였으며 이후 서면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참여자의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보관하였으며, 면담내용이 필사된 파일은 연구자의 컴퓨터에만 저장하였다. 출력된 필사 자료도 지정 장소에만 보관하여 자료의 익명성과 비밀보장에 최선을 다할 것을 설명하고 실행하였다.

2.6 연구의 엄밀성

본 연구는 질적연구의 엄밀성을 확보하기 위해 Lincoln과 Guba[28]이 제시한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사실적 가치(truth value) 확보를 위해 참여자에게 분석내용을 보여주어 본인의 진술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였다. 적용성(applicability)은 자료가 포괄될 때까지 참여자와의 면담을 지속하였으며,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간호대학생 2명에게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공감 확인을 통해 확보하였다. 일관성(consistency) 확보를 위해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간호학 교수 2인에게 자료분석과 주제 범주화에 대한 자문을 받았고, 분석단계에서 도출된 의미에서 주제, 주제 모음, 범주의 상위단계로 맞게 구성되었는지 대한 검토를 받았다. 중립성(neutrality) 유지를 위해 성 소수자에 대한 연구자의 선입견, 편견 등을 배제하기 위해 괄호 처리(bracketing)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은 8명으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ID	Age	Gender	Religion
1	25	F	none
2	29	F	none
3	23	F	Christian
4	32	M	Christian
5	27	M	Buddhism
6	23	F	none
7	26	M	none
8	24	F	Catholic

3.2 자료 범주

본 연구는 원자료에서 추출한 125개의 의미 있는 진술에서 38개의 구성된 의미, 16개의 주제와 8개의 주제 모음, 4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Table 2].

3.2.1 성 소수자에 대한 양가감정

참여자들은 개인의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은 자기선택 권이자 자기결정권이라는 인식으로 성 소수자들의 감정과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한편 참여자들은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다소 과도한 행동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보이고 가족

에게는 충격과 심리적 상처를 주는 행위라고 인식하였다.

주제 모음 1.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은 자기선택권임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은 자기선택권임'은 '사랑의 감정은 개인의 권한임', '선천적 성별은 절대적이지 않음'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이성애, 동성애 등이 사랑의 하나의 형태일 뿐, 그 대상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인식하였다. 나아가 참여자들은 성별 정체성은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성전환자도 성별의 구분을 떠난 하나의 인격체일 뿐이라고 인식하였다.

"처음에는 종교적인 것 때문에 좀 별론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사랑의 감정이 남자, 여자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에게 일어나는 거니까. 모든 사람한테도 나타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참여자 4).

"성 정체성에 혼란이 와서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 성으로 살지 못하고 내가 살고 싶은 성으로 전환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신적으로든 생물학적으로든 살아가는데 힘들다고 하면 인정을 해주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좋다 싫다, 옳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냥 하나의 인격체로 보게 되었어요"(참여자 5).

주제 모음 2.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행동이 불편함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행동이 불편함'은 '사회적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 행동에 거부감이 생김', '가족에게 피해

Table 2. Categorizing

Categories	Theme Clusters	Themes
Ambivalence towards sexual minorities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re personal choices	The Feeling of love is the right of the individual
		Innate gender is not an absolute
	Inconvenience to behavior against universal values	Resistance to behavior that is inconsistent with social sentiments
Empathy for the sexual minorities' difficult situation	Pity for the hurt caused by social prejudice	It's a family-damaging thing
		The pity of one-sided stigma
	Unfairness of discrimination against minorities	The pitifulness of living in the shadows
		Social aggression is excessive
Fear of caring for sexual minorities	Tension of interaction	Institutional inequality is unreasonable
		Sexual minorities are unfamiliar
	Lack of confidence in caring	Concerned about the emotional hurt of sexual minorities
		Lack of general knowledge about sexual minorities
Preparation for the future as a nurse	Reflecting on my attitude as an advocate	Lack of nursing training for sexual minorities
		Reflecting on the meaning of care
	Thinking about how to respond as a nursing professional	Looking back on respect for diversity
		Commitment to quality care efforts
		Desiring a sexual minority-friendly work environment

를 주는 일임'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사회의 일반적인 가치나 정서에 비해 다소 급진적인 행동은 보기에 불편하며 이러한 행동이 도리어 성 소수자에 대한 거부감을 초래한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현재 우리 사회의 성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가족이 감수해야 하는 심리적 충격과 상처가 클 것이라고 피력하였다.

“퍼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자유로움을 보여주는 거는 좋지만 아무래도 한국의 정서라는 게 있고 아직은 그런 문화가 저희한테 고착되지 않은 시대에 옷을 너무 막 이렇게 입는다거나,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거리에서 동성끼리 애정 행각을 심하게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더 편견을 주고 혐오감을 불러오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참여자 8).

“뭔가 타인은 무관심해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족은 이해를 못할 것 같고, 가족한테 충격을 줬다는 것에 좀 미울 것 같아요”(참여자 2).

3.2.2 성 소수자의 힘든 처지에 대한 공감

참여자들은 사회의 일방적인 낙인과 부정적인 시선에 위축되어 음지에서 살아가는 성 소수자들의 삶에 인간적인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성 소수자들에게 가해지는 우리 사회의 과도한 공격이나 반인권적 차별은 부당하다고 인식하였다.

주제 모음 1.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상처가 안쓰러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상처가 안쓰러움’은 ‘일방적 낙인이 안타까움’, ‘음지에서 살아가는 것이 딱함’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성 소수자는 비윤리적이며 비정상적 집단이라고 치부 당하는 것에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사회의 차가운 시선에 상처받고 위축되어 자신들이 성 소수자임을 숨기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안타깝다고 하였다.

“저희가 성소수자에 대해 배우는 거도 성병과 연관되어서 다루고 있고, 특히 어르신들은 ‘동성애자는 더럽다, 불결하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니까 이런 거로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요”(참여자 7).

“동성에 친구 한 명이 병원에 갔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반응이 좀 그랬었나 봐요. 그런 걸 왜 해요? 막 이렇게 물

어보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자기가 이해받지 못할 거 같고 별로 환영받지 못하니까 병원 가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데 마음이 안 좋았어요”(참여자 4).

“성소수자가 계속 음지에 있으니까 더 안 좋은 상황들이 생기고 사회적 문제나 병 같은 것도 더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요”(참여자 5).

주제 모음 2.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부당함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부당함’은 ‘사회적 공격이 과도함’, ‘제도적 불평등은 불합리함’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성 소수자를 자극적인 소재로 사용하고 정당한 자기주장 행동에도 과도한 공격을 가하는 사회분위기는 변해야 된다고 하였다. 또한 성 소수자가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피력하였다.

“드라마나 미디어에서 엄청 자극적인 요소로 쓰일 때가 많잖아요. 너무 자극적으로 표현이 돼서 살아가는 게 많이 힘들 것 같더라고요. 항상 뭔가 소수는 사회에서 공격받는 대상이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참여자 8).

“요즘에 비혼 동거인을 법적으로 인정하려는 이야기 밑에 ‘이거 그냥 동성애자들 좋으라고 만드는 거 아니냐’는 말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이 사람들도 어쨌든 같이 살아가는 사회인데 정말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나, 왜 거기서도 동성자들만 더 욕을 먹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참여자 4).

3.2.3 성 소수자 돌봄에 대한 두려움

참여자들은 졸업 후 임상현장에서 성 소수자를 돌봄 대상으로 대하는 것이 매우 생소할 것이며, 자신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성 소수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음에 대해 걱정하였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성 소수자에 대한 지식과 간호훈련이 매우 부족하다고 인식하며 성 소수자 돌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우려를 피력하였다.

주제 모음 1. 상호작용이 긴장됨

‘상호작용이 긴장됨’은 ‘성 소수자가 생소함’, ‘성 소수자의 마음의 상처가 신경 쓰임’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임상현장에서 성 소수자를 간호 대상으로 접해

본 경험이 없어 성 소수자가 낯설게 느껴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자신의 서투른 언행이 성 소수자에게 심리적인 상처를 줄까 봐 걱정하며 성 소수자에게 다가가기 조심스럽다고 하였다.

“환자분이 오셨는데 ‘저는 레지비언입니다’ 말하면, 한 번도 실습하면서 마주친 적이 없었으니까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간호하기가 싫어진다는 느낌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얘기를 해야 그 환자분이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약간 조심스럽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참여자 2).

“성소수자 대상자라면 편하게는 얘기를 못하고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어찌 됐거나 제가 그들에게 잘 접근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말하면서도 내가 실수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더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참여자 6).

주제 모음 2. 돌봄 자신감이 부족함

‘돌봄 자신감이 부족함’은 ‘성 소수자에 대한 일반적 지식이 부족함’, ‘성 소수자를 위한 간호훈련이 부족함’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공식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하였으며, 나아가 간호교육과정에서도 성 소수자들의 건강요구, 건강문제, 상담 기술 등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면서 성 소수자 간호에 대해 자신이 없다고 하였다.

“성소수자에 대해 한 2% 정도 안다?, 저는 제가 알아봤던 용어 같은 거 밖에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주제에 대해 다루는 교육이 많이 없었어요. 성소수자들이 의료인에게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많이 당황스러울 거 같아요”(참여자 2).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걸리는 건강문제, 요구 이런 것들을 정신간호나 상담 교과목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가지고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참여자 7).

3.2.4 간호사로서 미래를 위한 준비

참여자들은 간호사로서 취약한 소수자를 돕고 배려해야 한다는 간호 윤리와 역할을 돌아보고 나아가 다양한 문화적 가치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간호역량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성 소수자의 고유한 건강

수요에 대한 대응 노력과 평등한 간호 제공에 대한 의지를 다졌으며, 성 소수자 친화적 근무환경을 희망하였다.

주제 모음 1. 옹호자로서의 태도를 성찰함

‘옹호자로서의 태도를 성찰함’은 ‘돌봄의 의미를 되새김’, ‘다양성 존중의식을 돌아봄’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성 소수자는 이성주의 사회에서 취약 계층이며, 간호사로서 중립적인 태도와 소수자들의 어려움과 고통에 대한 배려와 공감이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간호전문인의 소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제가 종교가 개신교라 이전에는 종교적인 영향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 제가 간호사라는 직업을 갖게 될 거고, 간호 윤리 뭐 이런 걸 배우게 되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참여자 3).

“성소수자가 요즘에 더 많이 보이는 이유는 이제 다양성을 존중하고 SNS도 많이 활성화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요새 외국인도 많고 탈북민도 있고 여러 문화들이 있잖아요. 성소수자도 하나의 문화, 하나의 가치관으로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참여자 6).

주제 모음 2. 간호전문인으로서의 대처를 고민함

‘간호전문인으로서의 대처를 고민함’은 ‘질적 돌봄 노력을 다짐함’, ‘성 소수자 친화적 근무환경을 희망함’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성 소수자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간호사로서 차별 없는 질적인 간호 제공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병원이 보다 성 소수자를 배려하고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적, 교육적 측면의 변화를 바랐으며, 나아가 성 소수자에 대한 열린 조직 문화를 희망하였다.

“요즘 병원에서는 중국인, 인도인, 프랑스인, 미국인, 일본인 할 것 없이 최고의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성소수자라고 해서 왜 그런 대우를 못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참여자 5).

“성소수자가 어떤 이유로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사람 삶에서 계속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예방 방법과 그 사람이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간호사가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참여자 7).

“사회적으로 성소수자 친화적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병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병원 의료진들에게도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의료환경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참여자 3).

4. 논의

본 연구는 성 소수자에 대한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인식을 탐색하고자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성 소수자에 대한 양가감정’, ‘성 소수자의 힘든 처지에 대한 공감’, ‘성 소수자 돌봄에 대한 두려움’, ‘간호사로서 미래를 위한 준비’의 4가지 범주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범주는 ‘성 소수자에 대한 양가감정’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사랑의 감정과 대상은 개인의 선택과 결정의 영역이며 성별 정체성 역시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 소수자에 대한 주관성 연구[29]에서 동성애는 옷을 고르는 취향처럼 개인적인 사항으로 타인이 개입할 일이 아니며, 남성성과 여성성은 상대적이며 유동적인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또한 성적지향-성별 정체성(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SOGI)이 국제인권의 핵심 규범으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성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변화[30]를 반영하는 결과로 보여진다.

그러나 반면,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사회적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 과도한 행동이나 주장 행동에 거부감이 있으며, 가족에게는 상처가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성 소수자에 대한 주관적 관점을 조사한 연구[29]에서 사회적 규범을 벗어나는 성 소수자의 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으며 성 소수자 축제 참가자들의 과도한 노출 및 복장 불량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유형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이는 한국사회는 성 소수자에 대한 지지 수준이 타인보다 자신의 지인에게 더 저항감이 높다[31]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고 보여진다. 또한 이는 성 소수자가 부모에게 키밍아웃하는 것에서 더욱 큰 위협을 무릅쓰며 [6], 가족에게 키밍아웃을 하는 경우 가족으로부터 정신 이상자, 변태 등의 취급을 당하고 관계가 단절되는 경험을 한다[32]는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우리 사회

에서 성 소수자가 처한 위치를 드러내며 여전히 성 소수자에 대한 높은 장벽이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연구[25]에서 성적 자율성이 낮을수록, 전통적이며 보수적인 성 역할 관념을 보일수록 동성애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성 소수자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태도와 인식을 탐구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므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성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혐오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가치관, 경험, 정서 등의 다양한 요인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성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줄이고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시킬 수 있도록 성 소수자의 특수성과 다양한 문제상황들에 대한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중재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범주인 ‘성 소수자의 힘든 처지에 대한 공감’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사회의 부정적이며 차가운 시선으로 인해 성 소수자가 경험하는 심리적 상처에 대해 연민과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2019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조사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명시적 편견, 즉 편견을 겉으로 드러내는 적대적 태도가 북한 이탈주민, 이주노동자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결과[2]와 국내 성 소수자 청년 절반 이상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비밀로 하고 벽장 속에 숨어 있으며 커뮤니티 참여율이 낮다는 보고[33]에 비추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는 간호사가 가족들에게도 자신의 성 정체성을 비밀로 하며 병원방문이 쉽지 않아 치료 시기가 늦어지는 성 소수자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낀다[22]는 선행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성 소수자들은 의료시설에서 의료인들의 경시하는 태도와 눈길을 의식한다고 하였다[11]. 이러한 성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은 성 소수자의 의료접근성을 저해하고 나아가 의료서비스 전반과정에서 주변화되는 현상을 초래한다[9]. 그러므로 임상현장에서 성 소수자와 가장 밀접히 접촉하며 직접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간호사가 성 소수자에 대해 틀어막힌 인식과 경험을 하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참여자들은 보편적인 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사회의 과도한 공격과 성 소수자에게 제도적 차별은 부당하다고 인식하였다. 여러 실태조사 및 연구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제도적 차별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4,5,6]. 우리나라 청년 성 소수자들은

제도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며, 성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일삼는 미디어에 대한 분노도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 그러나 차별을 경험한 성 소수자들은 공격 영역에서 성 소수자의 차별을 진지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낮기 때문에 차별의 해결과 피해 구제를 개인의 몫으로 남기는 실정이므로[6], 성 소수자 차별에 대한 국가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하여 이들을 동등한 시민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변화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성 소수자 경험하는 일상에서의 사회적 혐오와 차별에 대한 반응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12,13,14,15,16], 이들의 건강상태와 건강요구들을 보다 면밀히 조사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세 번째 범주인 '성 소수자 돌봄에 대한 두려움'에서 참여자들은 임상실습 현장에서 성 소수자를 접해본 경험이 없었으며 이들이 안고 있는 마음의 상처가 자신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악화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가 성 소수자라는 잘 모르는 환자가 본인과 다른 사람 같아서 어떻게 대할지 고민하며 성 소수자 간호에 불편감과 부담감을 경험한다[22]는 선행 연구결과를 일부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이는 간호대학생들이 성 소수자와의 의사소통에 가장 큰 부담을 가진다는 보고[26]에 비추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간호사와 성 소수자와의 치료적 관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간호사가 성 소수자가 가진 심리적 상처나 장벽을 이해하고 이들의 기분이나 행동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간호학과 학부과정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성 소수자와의 직접 접촉 경험이 성 소수자에 대한 명시적 편견을 감소시킨다는 결과[2]를 고려할 때, 정규 교과과정만이 아닌 지역사회 다문화 축제, 인권영화제, 성 소수자 관련 세미나 등의 비교과 프로그램 등의 일상공간에서의 자연스러운 교류와 접촉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참여자들은 성 소수자에 대한 지식과 간호훈련이 부족하여 돌봄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간호사들이 성 소수자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91%에 달하며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단

지 몇 분이나 몇 시간 정도에 불과했다고 한 연구결과[34]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 소수자의 경험적 증대는 간호대학생들의 성 소수자에 대한 지식과 친밀감을 증진시키며[35],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LGBT 교육은 간호대학생의 성 소수자에 대한 지식과 간호 태도를 향상시킨다[26]. 따라서 향후 간호대학생이 성 소수자에 대한 감수성 및 성 소수자 간호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성 소수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한 인식개선 및 상담 교육프로그램, 성 소수자 정신 건강, 성 건강 등을 주제로 한 PBL 및 시뮬레이션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주제 및 방법에 대한 요구도 조사를 시행하고 요구를 반영한 교육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국내외 간호교육에서 실시한 성 소수자 간호교육의 방법과 이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동시에 간호교육자들의 성 소수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 조사가 병행된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네 번째 범주는 '간호사로서 미래를 위한 준비'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성 소수자들이 사회의 소수자들에 대한 배려와 공감, 다양성 존중의식을 되새기며 옹호자로서의 태도를 취하였다.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정책 중 하나로 취약 계층의 건강 불평등 감소를 강조하고 있다[19], 또한 간호의 본질은 취약한 대상자를 돌보며 이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이 간호사의 핵심역할이다[36]. 최근 돌봄현장에서 소수자의 문화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더불어 이들의 요구에 대한 민감하고 공감적인 대처가 중요시되고 있다[11,16,17,18].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성 소수자의 개별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인간존중에 기초한 돌봄이 소수자 간호에 기반이 됨을 시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사가 임상현장에서 소수자의 인권을 기반으로 하여 성 소수자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보호하는 간호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하겠다. 이를 통해 간호의 본질인 돌봄에 대한 신념과 이상적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참여자들은 성 소수자에게 보다 질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과 지지자원을 고민하면서 간호사로서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임상현장은 이성주의 중심 사회에서 성 소수자의 건강문제를 알고 문화적으로 역량 있는 간호사와 의료진이 부족하다[9,20,21]. 이에 성 소수자들은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통해 차별이 없는

병원을 모색하여 찾고 있는 실정이며[9], 이들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6]. 또한 성 소수자들은 성별 정체성에 맞지 않는 입원실, 탈의실 등의 의료환경으로 인해 많은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 따라서 의료기관 종사자는 성 소수자를 차별하지 않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의료 영역 종사자로서의 책무이며, 사회정의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업무 속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포용을 증진하고 차별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역량을 향상시켜야 하겠다. 이를 위해 성 소수자에 대한 감수성 및 인식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병원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 등의 제도적인 접근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생각되며 나아가 성 소수자를 보다 배려하는 의료환경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간호사의 성 소수자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규명하는 연구 수행을 제안한다. 나아가 성 소수자를 세분화하여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 매뉴얼과 유형별 구체적인 중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임상현장에서 성 소수자 간호 경험의 어려움과 효과적인 대처 방안 등을 발굴하여 공유한다면 성 소수자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5. 결론

본 연구는 성 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살펴보고, 그 인식의 의미와 본질을 탐구하여 다음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대상자는 ‘성 소수자에 대한 양가감정’, ‘성 소수자의 힘든 처지에 대한 공감’, ‘성 소수자 돌봄에 대한 두려움’, ‘간호사로서 미래를 위한 준비’를 인식함을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성 소수자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내외적 요인을 규명하고 성 소수자 간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질적인 간호 제공을 촉진시키기 위한 간호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성 소수자 인식을 알아보기와 4학년 간호대학생 8명만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기에 연구결과 해석에 제한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추후 반복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현상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성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1] J. H. Koo. (2013). The analysis of acceptance by elementary school teachers on the minority and affirmative action.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45(3), 31-53. DOI: 10.35557/trce.45.3.201309.002
- [2] Y. S. Joo, K. T. Kim & B. M. Kim. (2019). *Public attitudes towards social minorities: The case of south korea*. Sejo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3] Cochat Costa Rodrigues, M. C., Leite, F., & Queirós, M. (2017). Sexual minorities: The terminology. *European Psychiatry*, 41(S1), S848. DOI:10.1016/j.eurpsy.2017.01.1680
- [4]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14). *A survey on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Seoul: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5]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20). *A survey on transgender hate discrimination*. Seoul: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6] S. J. Jeon, B. M. Kim, K. Y. Sim & S. J. Han. (2022). *2021 A Survey on the social needs and conditions of sexual minorities among young people*. Seoul : Dawoom
- [7] R. L. Dearing & A. L. Hequembourg. (2014). Culturally (in) competent? Dismantling health care barriers for sexual minority women. *Social Work in Health Care*, 53(8), 739-761. DOI: 10.1080/00981389.2014.944250
- [8] C. Dorsen & N. Van Devanter. (2016). Open arms, conflicted hearts: Nurse-practitioner’s attitudes towards working with lesbian, gay and bisexual patients.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5(23-24), 3716-3727. DOI: 10.1111/jocn.13464
- [9] I. S. Son, H. M. Lee, J. Y. Park, S. S. Kim. (2017). Social stigma and medical marginalization in healthcare service among transgender people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Sociology*, 51(2), 155-189. DOI:10.21562/kjs.2017.05.51.2.155
- [10] M. J. Eliason, S. L. Dibble & P. A. Robertson. (2011).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 (LGBT) physicians' experiences in the workplace. *Journal of Homosexuality*, 58(10), 1355-1371.
DOI: 10.1080/00918369.2011.614902
- [11] E. D. Wyckoff. (2019). LGBT cultural competence of acute care nurses. *Journal for Nurses Professional Development*, 35(3), 125-131.
DOI:10.1097/NND.0 000000000000524
- [12] I. H. Meyer. (2003). Prejudice, social stress, and mental health in lesbian, gay, and bisexual populations: Conceptual issues and research evidence. *Psychological bulletin*, 129(5), 674-697.
DOI: 10.1037/0033-2909.129.5.674
- [13] K. Traynor. (2016). Words, cultural competence matter in LGBT patient care. *American Journal of Health-System Pharmacy*, 73(14), 1022-1023.
DOI:10.2146/news160043
- [14] D. M. Frost, K. Lehavot & I. H. Meyer. (2015). Minority stress and physical health among sexual minority individual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38(1), 1-8.
DOI: 10.1007/s10865-013-9523-8
- [15] E. McEwing. (2020). Delivering culturally competent care to the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LGBT) population: Education for nursing students. *Nurse Education Today*, 94, 1-7.
DOI: 10.1016/j.nedt.2020.104573
- [16] T. Traister. (2020). Improving LGBTQ cultural competence of RNs through education. *Journal of Continuing Education in Nursing*, 15(1), 359-366.
DOI: 10.3928/00220124-20200716-05
- [17] M. K. Kim & H. Y. Kim. (2022). A concept analysis of nurse's cultural competence for LGBT: Hybrid model.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2(8), 691-703.
DOI: 10.22251/jlcci.2022.22.8.691
- [18] M. K. Kim. (2021). An integrative review of nursing studies related to LGBT cultural competence intervention based on nurses and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2(6), 2963-2977.
DOI:10.22143/HSS21.12.6.208
- [19]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4). *Health Topics*. WHO(online).
https://www.who.int/health-topics/gender#tab=tab_2
- [20] F. A. Lim & R. Hsu. (2016). Nursing students' attitudes toward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persons: An integrative review. *Nursing Education Perspectives*, 37(3), 144-152.
DOI:10.1097/01.nep.0000000000000004
- [21] K. L. Strong & V. N. Fols. (2015). Assessi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knowledge, attitudes, and cultural competence in Caring for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pati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54(1), 45-49.
DOI: 10.3928/01484834-20141224-07
- [22] M. K. Kim & H. Y. Kim. (2021). The Nurse's Experience in Caring for LGBT Patients : Phenomenological Study.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1(3), 541-551.
DOI: 10.5392/JKCA.2021.21.03.541
- [23] C. Della Pelle, F. Cerratti, P. Di Giovanni, F. Cipollone & G. Cicolini. (2018). Attitudes towards and knowledge about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patients among italian Nurses: An observational study.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50(4), 367-374.
DOI:10.1111/jnu.12388
- [24] H. R. Yi, H. M. Lee, J. W. Yoon, J. Y. Park & S. S. Kim. (2015). Transgender people's access to health care in korea.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5(4), 64-94.
DOI: 10.15709/hswr.2015.35.4.64
- [25] S. A. Park, K. S. Shin & H. Y. Kim. (2019). Factors influencing on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among nursing students: Focusing on sexual assertiveness and sex stereotype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7), 69-77.
DOI:10.5762/KAIS.2019.20.7.68
- [26] S. J. Kang & H. Y. Min. (2019). Effects of LGBT nursing education using simulatio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5(4), 379-391.
DOI:10.4069/kjwhn.2019.25.4.379

- [27] P. E. Colaizzi.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 for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28] Y. S. Lincoln & E. G. Guba. (1985). *Effective evaluation (4th ed.)*. San Francisco: Jossey-Bass.
- [29] L. S. Ann. (2018). Subjectivity about Sexual Minority : A Q-methodology Approach.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1), 527-539.
DOI: 10.5392/JKCA.2018.18.01.527
- [30] McCarthy. J. (2023). *Majority Worldwide Now Say Their Area is Good for Gay People(online)*. <https://news.gallup.com/poll/507518/majority-worldwide-say-area-good-gay-people.aspx>.
- [31] A. Adamczyk & Y. C. Liao. (2019). Examining public opinion about LGBTQ-related issues in the United States and across multiple nat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45, 401-423.
DOI: 10.1146/annurev-soc-073018-022332
- [32] J. Y. Kim. (2017). Mental health in LGBTs resulting from family rejection: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Korean Psychological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23(4), 605-634.
DOI:10.20406/kjcs.2017.11.23.4.605
- [33] S. J. Jeong & H. Y. Lee. (2023). Open, discreet, and repressive closet: Latent class analysis on the patterns of LGBTQ Youth's Coming Out. *Korean Journal of Sociology*, 57(4), 49-93.
DOI:10.21562/kjs.2023.11.57.4.49
- [34] D. Manzer, L. F. O'Sullivan & S. Doucet. (2018). Myths, misunderstandings, and missing information: Experiences of nurse practitioners providing primary care to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patients. *The Canadian Journal of Human Sexuality*, 27(2), 157-170.
DOI:10.3138/cjhs.2018-0017
- [35] R. Carabez, M. Pellegrini, A. Mankovitz, M. Eliason, M. Ciano & M. Scott. (2015). Never in all my years: Nurses' education about LGBT health.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31(4), 323-329.
DOI: 10.1016/j.profnurs.2015.01.003
- [36] Korean Nursing Association (2023). *Korean Nurses Ethics*. KNA(online)
https://www.koreanursing.or.kr/about_KNA/ethics.php?mn=2#s1

염은이(Eun-Yi Yeom)

[정회원]



- 199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학사)
- 2006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3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3년 9월 ~ 현재 : 청운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만성질환 간호, 시뮬레이션 교육, 질적 연구
- E-Mail : eyyeom@chungwoon.ac.kr